

“광주·전남이 먼저 지역구도 타파” 여론 확산

이정현 바람
민심 흔드나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바람’이 순천·곡성 지역구를 넘어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순천·곡성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광주와 전남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항우들까지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순천·곡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지인들에게 이정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이정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정현 바람의 원동력은 ‘진정성’으로 집약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언론과 공무원들의 입소문을 통해 확산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39.7%의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아깝게 석패한 점에 대한 아쉬움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보선이란 특성이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 4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이라면 새누리당이지만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정치적 명분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 스스로 새정치민주연합 독점 구도를 깨트리면서 지역주의 타파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에 이렇진다면 지역주의에 근간하고 있

순천·곡성, 지역방송사 여론조사서 38.4%로 1위

새정치 순천에 천막당사 마련...바람 차단에 총력

는 국내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평소에는 ‘탈호남을, 선거 때는 호남을 찾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성과 정치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지역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정현 카드가 호남의 정치적 고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탕평 정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이정현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를 제치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여수 MBC와 순천 K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는 38.4%, 새정치연합의 서갑원 후보는 33.7%의 지

지율을 얻었다. 오차범위내지만 이정현 후보가 상승 추이를 지속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21일 사이 순천·곡성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낙승은 아니어도 완승을 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거세지는 ‘이정현 바람’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도부는 물론 당내 중진들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 선거 막판까지 총력전

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순천·곡성이 새누리당에 넘어간다면 야권의 심장인 전남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인정하는 셈이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태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정현 바람의 역풍으로 새정치연합 지지층이 결집하고 서갑원 후보를 3선 국회의원의 지역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면 이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청자축제 26일 개막

23일 강진군 대구면 강진요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강진 청자박물관 인근에서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檢·警, 통나무벽 안의 유병언 농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총력을 쏟았던 검찰이 코앞에서 유 전 회장을 세 번 마주쳤으나 어설픈 수색으로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이어 인천지검까지 유 전 회장을 연이어 놓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검

찰은 지난 5월 25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이른바 통나무집)을 찾았으나 인가척이 없자 돌아섰다.

검찰은 같은 날 밤 9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통나무집에 대한 수색을 벌여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여·33)씨를 구속했다.

당시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

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곧장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씨는 도피한 뒤였다.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9.9㎡) 크기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며 밖에서 볼 땐 통나무로

별장 수색 때 코 앞에서 세 번 허탕
현금 8억3000만원·16만달러 수거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위장했다.

검찰은 또 통나무 벽안에서 발견한 여행용 가방 2개에서 현금 8억3000만 원, 미화 16만달러를 찾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순천지청은 지난 5월 22일 인천지검의 협조를 받아 수사관을 보냈지만 송치재 휴게소만 훑어본 뒤 유 전 회장이 은신해 있던 통나무집에 대해서 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지청에 이어 인천지검도 유 전 회장을 코앞에 두고도 부실한 수색으로 연이어 놓친 셈이다. 검찰이 통나무집에 대한 수색만 제대로 했어도 유 전 회장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별장 첫 수색 당시 통나무 안 공간과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세월호 참사 100일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0명 사망 294명

23일 오후 8시 현재 ▶ 4·6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 19일(주일)~22일(수)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광신대학교 062)605-1000

한울

한울 韓律

NEW 주름개선기능성 식품(의약품안정)

당신이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령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솔잎 추출물을 담아 새로워진 한울 율령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한울 율령원액: 진후 갈색솔잎 추출물 농도 비교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 효과

1. 갈색솔잎 추출물 함유	2.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3.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4. 피부가 다해져 탄력 있어 보이는 것 같다	99%	5.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인다	99%	6. 피부가 촉촉해졌다	99%
7. 피부가 깨끗해졌다	98%	8. 피부가 촉촉해졌다	98%	9. 피부가 촉촉해졌다	98%

*시험 방법: 10명 남·여가 10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